



참오동나무 / *Paulownia tomentosa* (Thunb.) Steud.

| 구분 | 설명 |
|------|-------|
| 생물분류 | 식물 |
| 속국명 | 오동나무속 |
| 과국명 | 현삼과 |

| | |
|------|---|
| 과명 | Scrophulariaceae |
| 일반특징 | <p>요약설명 : 현삼과 낙엽 활엽 교목으로 전국 각지에 심어 재배한다. 과거 울릉도가 나고 자라는 장소였다. 중국과 일본에서도 재배한다.</p> <p>분포지역 : 중국, 일본에 재배; 전국 식재, 과거 울릉도가 자생지.</p> <p>형태 : 낙엽 활엽 교목.</p> <p>크기 : 높이 15m.</p> <p>꽃색 : 자주색</p> <p>개화기 : 5월,6월</p> <p>잎은 마주나기하고 넓은 달걀 모양이며 3~5개로 약간 갈라진다. 점첨두, 심장저이다. 겉면에 털이 촘촘히 나고 뒷면에는 대가 있는 연한 갈색 털이 나 있다. 가장자리는 밋밋하며, 잎자루에는 잔털이 있다.</p> <p>꽃은 5월 중순 피고, 가지 끝의 원뿔모양꽃차례를 이룬다. 꽃잎 전체는 깔때기 비슷한 종 모양이며 연한 보라색이다. 또한 세로로 평행하게 달리는 자주색 점선이 있으며 곁에 분비샘이 발달한 털이 있다. 꽃받침은 넓은 종 모양이고 꽃받침조각은 5개이다. 꽃대에는 갈색 털이 뺏뺏하게 나 있다.</p> <p>열매는 삭과이고 둥근 모양이며 예두이다. 털이 없고 10월에 익는다.</p> <p>한방에서는 나무껍질을 백동피()라고 부른다.</p> <p>가지는 굵고 퍼지며 어린 가지에 털이 많이 나 있다.</p> <p>햇빛에서 자라는 나무이며 어릴 때는 무리지어 자라는 성질이 강하지만 성장함에 따라 그 정도가 차츰 낮아진다. 바닷바람에 강하고 추위에는 보통이다. 땅이 깊고 기름지며, 수분이 적당한 곳에서 매우 잘 자란다. 씨앗을 뿌리거나 꺾꽂이, 뿌리 나누기 등의 방법으로 번식시킨다.</p> |